
멕시코와 중미 이민자의 초상

이은아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I. 들어가며

미국의 불법 이민자 총수는 1,120만 명으로 지난 2년간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인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불경기로 인한 높은 실업률과 불법 체류자의 본국 송환에 적극적인 오바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말이다. 예상과는 달리 불법 이민자의 58%(약 8백만의 불법 노동자)를 차지하는 멕시코 출신의 본국 귀환이 대규모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도 불법 이민자가 감소했다는 워싱턴의 보도가 흘러나왔지만 현실은 다른 양상으로 드러난 셈이다. 8백만이란 숫자는 미국 전체 노동력의 약 5%에 해당한다. 이런 결과는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 이민법 강화 정책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주정부들이 불법 이민자 색출에 보다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사실상 미 정부는 지난 2년간 각각

40만 명을 추방했고, 애리조나 주의 반이민법의 상당 부분이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강력한 법안이 조지아 주, 오클라호마 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와 같은 곳에서 통과되었다. 불법 이민자수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오바마 정부가 경찰이 노동 현장을 급습해 불시에 체포하는 것을 금지시킨 결과, 불법 노동자들이 받는 위협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2010년에 태어난 신생아 중에서 부모 중 한 사람이 불법 체류자인 경우는 35만 명인데, 이는 총 신생아의 8%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멕시코와 중미 출신의 미국 이민자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멕시코 출신과는 달리 중미 출신은 아직 라티노 사회에 제대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최근 20년간 급증한 인구로 인해 라티노 사회를 한층 더 복잡다단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미국에는 290만 명의 중미 출신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5명당 2명 이상이 불법 체류자이고 10명당 1명꼴로 일시 인도적 보호 아래 있다. 이들의 낮은 교육 수준, 빈약한 영어 구사력과 더불어 최근 3년간 불어닥친 경제위기 동안 일자리가 현저히 감축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종사했다는 점이 미국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이들이 미국 사회의 최하층에 남아 미래의 사회비용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 글을 통해 현 인구 분포 및 역사적 흐름, 당면 문제 등을 간략히 살펴본다.

II. 이민자 통계별 현황

1. 이민자 국가별 분포

미국의 히스패닉 전체 이민자 5,073만 중 멕시코 태생 이민자가 1,170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멕시코와 중미(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태생을 더하면

출생국으로 본 미국의 히스패닉(2010년)

	전체	미국 태생	본국 태생	본국 태생 비율(%)
멕시코인	32,915,983	21,208,393	11,707,590	35.6
엘살바도르인	1,827,290	687,780	1,139,510	62.4
과테말라인	1,107,859	366,848	741,011	66.9
온두라스인	730,954	244,269	486,685	66.6
∴	∴	∴	∴	∴
전체 이민자	50,729,570	31,912,465	18,817,105	37.1

출처 | Pew Hispanic Center, Statistical Portrait of Hispanics in the United States, 2010.

27.7%(1,407만 명)에 해당하는데, 놀랍게도 최근 이민자가 급증한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는 각각 자국 인구의 6~19%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멕시코인은 1970년대에는 7번째 규모로서 76만 명이 거주했으나, 1980년대 220만 명, 현재는 1,170만 명으로, 이민자 전체의 29.8%를 차지한다. 멕시코 이민자의 31%가 2000년대 이후 도미한 경우이다. 역사적으로 보통 멕시코의 중앙과 서부 주의 사람들이 떠났지만, 1980년대부터 남동부와 국경에 접한 주에서도 많은 인구 이동이 발생했다. 2008년 이주자 분포 조사에 의하면, 미초아칸 주 6.5%, 할리스코 주 5.3%, 과나후아토 주 8.6%이고, 치아파스 주 14.2%, 베라크루스 주 5.8%, 멕시코 주 5.7%로서, 기존의 중서부 주에서 남부 주와 남동부 주로 넓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미 이민자 인구는 90년대 이후 63%가 증가했는데, 엘살바도르 58%, 과테말라 70%, 온두라스 74%가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이민자의 6%를 차지하는데, 엘살바도르인은 약 110만 명, 과테말라인은 75만 명, 온두라스인은 48만 명이다.

2. 이민 지위

멕시코와 중미 국가는 이민자 전체 숫자뿐 아니라 불법 이민자 수에서도 당연 앞서고 있다. 출신 국가별 불법 이민자는 엘살바도르 550만 명, 과테말라 480만 명, 온두라스 32만 명, 멕시코 670만 명이다. 국가별 총 이민자에서 불법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6%(엘살바도르), 60%(과테말라), 68%(온두라스), 62%(멕시코)로 매우 높은 수치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불법 이민자 증가율은 엘살바도르 44%, 과테말라 79%, 온두라스 106%, 멕시코 42%이다. 시민권자 수는 29%(엘살바도르), 24%(과테말라), 22%(온두라스), 22%(멕시코)로, 다른 출신국의 시민권자 비율인 43%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멕시코 출신의 합법적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다면 시민권의 비율은 46%로 증가하여, 현재의 두 배를 상회하게 될 것이다. 1980년대 이래 멕시코 출신 이민자 중 260만 명, 중미 출신 이민자 중 90만 명이 합법적 지위를 얻었다. 멕시코 출신 불법 체류자는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압도적인 많은 다수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애리조나 주, 콜로라도 주, 뉴멕시코 주 같은 경우 불법 체류자의 90%가 멕시코 사람들이다.

3. 미국 내 지역적 분포

75% 정도의 멕시코 이민자는 전통적으로 멕시코 인구가 많은 5개 주에 밀집해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 37.5%, 텍사스 주 21%, 뉴멕시코 주 7%, 일리노이 주 6%, 애리조나 주 5%로 분포해 있다. 멕시코 이민자들은 세 개 주 이민자 인구 중, 뉴멕시코 주의 71%, 애리조나 주의 68%, 텍사스 주의 60%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뉴올리언스나 워싱턴 DC, 뉴욕 같은 외국 태생의 인구비율이 높은 대도시에도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른 주로 이민자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10년 동안 멕시코 이민자 인구가 5만 명 이상으로 상승한 주

는 조지아 주(83,516명), 네바다 주(70,739명), 노스캐롤라이나 주(70,491명), 뉴욕 주(68,923명), 콜로라도 주(58,099명), 뉴저지 주(57,703명), 워싱턴 주(55,328명), 플로리다 주(53,060명)이다.

중미인도 이와 유사한 주, 즉, 캘리포니아 주, 텍사스 주, 플로리다 주, 뉴욕 주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데, 이들 또한 다른 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조지아 주, 인디애나 주, 메릴랜드 주, 미네소타 주, 미주리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테네시 주, 워싱턴 주 전부에서 지난 10여 년간 중미 출신 이민자 인구가 2배 이상 상승했다.

4. 미국 내 경제활동

멕시코 이민자의 86%, 중미 이민자의 약 89%가 18세에서 65세 사이의 연령에 해당해서, 이 나이의 미국 평균 60%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80~87% 정도가 직업이 있는 상태이고, 이들 가운데 62%가 단순 기술직, 건축, 광업, 운반, 판매,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여성의 취업률은 멕시코 47%,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는 64%, 온두라스는 54%이다. 여성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전통적인 가정 형태를 고수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서 전업주부가 많은 탓이다.

학력은 25세 이상 멕시코 이민자 중 약 60% 정도가 고졸 이하이다. 다른 출신국 이민자의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평균 32.5%이므로 상대적으로 멕시코 출신의 학력이 월등히 낮은 편이다. 대학 중퇴 이상인 멕시코 출신은 5.2%로, 이 경우도 다른 국가 출신의 이민자 27.1%에 비해 낮다. 학력 저조는 당연히 저임금으로 이어진다. 이민자의 대부분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이민자의 약 4분의 1이 최저생계비 이하를 벌고 있다. 또한 그들이 종사하는 직업은 매우 불안정해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가장 먼저 실직하는 그룹이 된다.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멕시코와 중미 출신의 이민자 실업률은 약 9.1%였고, 2010년 6월에 14.6%로 가장 높았지만 2010년 7월 다시 9.8%로 하락했다.

III. 이민의 변화상

1. 역사적 배경

1) 멕시코의 경우

멕시코 이민자들의 인구 증가가 구조적 요소와 밀접히 관련돼 있음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민 허용과 불허용이라는 정치적 결정은 미국의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있어서, 미 정부는 대공황 이후 멕시코 이민자를 대규모로 추방하다가, 1942년 양국은 브라세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민 노동자 이민을 한시적 허용함으로써 기존 정책에서 급선회하였다. 브라세로 프로그램은 멕시코 내에서 이민을 독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에서는 이민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국경 양쪽에서 이주 공동체를 연결하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는데, 이차대전 종결 후인 1964년 이 프로그램이 사라지면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합법적 이민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다.

1980년대 이후 이민법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민법이 강화되면서 불법 이민자의 생활 조건은 보다 열악해졌고, 순환적 패턴이 장기간 체류 패턴으로 전화되었다. 90년대 이후 불법 이민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반이민자 정서가 고조되었고, 이민법 개혁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졌다. 주지하다시피, 미 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이나 국경 강화 정책은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불법 이민자가 너무 많아서 이민법 시스템의 역기능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 중미의 경우

이 지역은 1980년대 무력 충돌과 민중 봉기의 중심지였는데, 이 기간 동안 남미인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지리적 교량 역할을 담당했다. 80년대에는 엘

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의 내전으로 인해 이 세 국가는 파나마나 코스타리카에 비해 높은 이주율을 보였다.

2-1) 역사적 배경

앞서 언급했듯이, 중미는 무엇보다도 전쟁으로 많은 사람을 잃었다. 내전으로 인해 북쪽(Norte)으로의 이주가 시작됐고, 대규모 망명자들은 테우안테펙 지협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고자 시도했다. 80년대 이전까지 그들의 최종 정착지는 주로 멕시코, 코스타리카, 캐나다, 벨리즈로서, 그때까지만 해도 적은 수의 전문가나 기술 노동자들이 이동했다. 그러나 출신국의 사회 불안정이 악화되면서 중미 국가 사이의 노동자 이동이 위협해지자 대다수가 이 지역을 탈출하고자 시도한다. 미국은 당시 엘살바도르나 과테말라의 보수적 정부를 지원했고, 반공산주의자에게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쏟아부었다. 이로 인해 반정부 성향을 지녔거나 내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등지고 미국으로 정치 망명을 시도했다. 1990년대 미국 인구조사에 의하면 최소 100만 명 이상이 1980년대 미국으로 들어가 불법 체류자가 되었다. 그러나 내전이 종결된 후에는 경제적 피해로 인해 농부와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떠나면서 정치적 이주의 성격에 변화가 생겼다. 1970년대만 해도 이주민의 절반 정도는 중미 내부로, 나머지 절반은 외부로 이주했는데, 1980년대에는 80% 정도가 이 지역을 벗어났고, 1990년대에는 93%에 해당하는 이민자가 지역 밖으로 이주를 선택했다. 1990년대 말, 오랜 내전이 끝나고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선 동안 소수이지만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인들은 엘살바도르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었고, 콜롬비아 정치 망명자는 파나마를 선택했다.

2-2) 미국의 정책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미국은 중미인의 유입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고, 주정부는 이주 조건에 제한을 많이 두어 그들에게 살 곳을 개방하는 데 인색하게 굴었다.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까지 이민자들은 좌파 혁명세력과 연관성을 의심받았고, 미 정부는 국내에서 ‘피난처 운동’(Sanctuary movement)을 전개하던 활동가들을 지목해 중미인을 후원했다는 죄명으로 투옥시켰다. FBI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엘살바도르 이주민을 도와주는 ‘엘살바도르 사람들과의 연대 위원회’(CISPES)를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규정했다. 미 정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규 이민자를 도와주는 광범위한 차원의 노력을 범죄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민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미 정부는 중미 정치 망명 보호에 대한 요청을 대부분 거부했고, 오히려 니카라과 출신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였는데, 이는 니카라과 정부가 미국에 적대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2-3) 지방정부의 반대

텍사스의 리오그란데 강 하부 유역은 1980년대 중미 이민자들이 월경한 후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로서, 말하자면 미국이 이민자의 영향을 감지하는 첫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 출신 미국인에게는 이미 익숙한 곳으로 역사적으로 가난한 농부 출신의 이민자들이 이 유역에 걸쳐 정착했다. 대다수 중미인은 이곳에 도착하여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준비한다. 그러나 이들의 유입에 대해 텍사스 지방정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오스카 로메로의 집’을 들 수 있다. 가톨릭교회 관계자들은 1980년대 산베니토 시에 이 보호센터를 세우고, 중미 이민자에게 임시 보호처를 제공했다. 1985년 멕시코 청년과 중미 출신 청년들 사이에 패권 싸움이 벌어지자 이를 계기로 시에서는 보호센터에 과중한 벌금을 부과하면서 철수할 것을 종용했다. 이 보호센터는 이후 브라운

스빌로 이전했으나 1988년 멕시코계 미국인으로 이뤄진 이 지역 카운티 위원회는 미국 이민귀화국(INS)에 지지를 천명하면서, 멕시코 이외의 지역 출신 이민자의 유입을 거부하는 가혹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즉 임시 보호처 운동을 제한하는 연방정부의 일에 동조한 것이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바는 지방정부가 이 지역이 점차로 불법 이민자로 붐비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중미 출신들이 멕시코 출신의 기존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호의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2-4) 지역공동체의 반응

그러나 중미인에 대한 지방정부의 반응은 전체 공동체를 대변하지는 않았다.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은 개별적인 방식으로 후원했는데, 이민국의 국경 검문소에 의해 근처 지역이 봉쇄되면 이민자에게 임시 은신처를 마련해주는 등, 많은 멕시코계 미국인이 연대적 성격의 도움을 제공하였다. 멕시코 이민과는 다르게, 단기간에 걸친 대규모 중미인의 이민은 미국 내에서 정치운동을 촉발시켰다. 1980년대 중미의 미국 군사 개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이민자 공동체 내에서 정치적 조직을 만들었다. 이러한 정치 조직은 1990년대 내전이 종료되자, 미국에 거주하는 중미인과 연관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1980년대에는 중미 이민자를 정치 망명자로 보는 시각 덕분에 잠시나마 호의적 시선이 존재했지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멕시코 이민자처럼 중미 이민자를 미국 사회의 위협으로 간주하게 된다.

2. 월경의 어려움

중미인은 멕시코인에 비해 훨씬 큰 자연적·사회적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이들은 멕시코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시에라 마드레 산맥뿐 아니라 강, 호수, 사막

을 건너야 하는 실정인데, 특히 과테말라에서 멕시코를 넘어오다 많이 익사한다. 이 길을 멕시코 경찰은 ‘죽음의 통로’라고 부른다.

가장 위험한 이주 경우는 원주민 정체성을 지닌 농민 출신의 중미 여성이다. 이들은 성, 종족, 계급적 차별로 인해 각종 폭행에 노출된다. 요즘은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탈국가적 성향의 폭력 조직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더욱 무서운 위협을 감수하고 있다. 미국 국경의 밀입국 비용도 차이가 나는데, 최소 6천 달러 이상이 든다. 미국 국경뿐 아니라 멕시코 정부가 한때 과테말라와 접경 지역, 즉 치아파스 남쪽에 군사력을 강화시키면서, 과테말라 불법 이민자는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3. 멕시코 반이민적 상황

현재 중미인이 북쪽으로 이주할 때 봉착하는 위험은 상상 이상이다. 어느 이동 수단도 안전하지 못하다. 기차 안에서 살인과 강도가 일어나며, 부패 경찰이나 범죄 조직은 유괴, 강간, 살인을 자행한다. 동부 멕시코 쪽의 이동 노선을 따라서 특히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잔혹한 로스 세타스(Los Zetas) 마야카르텔이 통제하는 구역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민자를 유괴해서 미국의 가족에게 인질 석방비를 요구하거나, 마약 운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공연히 살인을 저지른다. 로스 세타스 카르텔은 이 지역 모든 교통 수단을 장악하고 경찰 속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범행을 공권력으로 저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일례로, 2010년 8월 72구의 중미인의 시체가 멕시코 북동부의 타마우리파스 주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2010년 6개월간 11,300명의 이민자가 유괴되었다고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멕시코는 이민 문제에 관해 이중적 도덕 잣대를 지니고 있다. 즉, 불법 이민 문제에 관해 미국에게 법 개정을 요구하면서도 멕시코 내부에서 불법 이민자가 발

견되면 흉악범 취급을 하는 것이다. 2008년 멕시코 의회에서는 최고 10년형의 형량을 부가하던 것을 축소해 최고 461달러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법안으로 바꿨는데, 이는 불법 이민자에 관해서 미국과 협상을 펼칠 목적으로 국내 이민법의 변화를 외부로 과시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제 현실 적용은 요원해 보인다. 임시 보호처를 폭력 조직이 공격하고, 사실상 정부는 묵인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멕시코 정부의 태도는 임시 보호처를 운영하는 어느 가톨릭 신부의 말처럼, 마치 “미국이 멕시코 이민자를 잘 대접하길 원해. 그래서 중미 이민이 골칫거리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질게.”라는 식이다. 따라서 장벽은 리오그란데 강이 아니라 훨씬 남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로 불법 입국하는 중미인의 숫자는 추정조차 어렵다. 과테말라와 벨리즈와 접해 있는 남쪽 국경 1,200km 정도의 지역은 점점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매년 17만 명이 국경을 넘고 있다고 추산하는데, 2011년 멕시코의 국가이민위원회는 6만 6천 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4. 이민자 감소 추세

미국의 실직률 상승과 멕시코의 치안 불안으로 인해 미국으로 향하는 중미인의 수가 2005년 43만 3천 명에서 2010년 14만 명으로 현저히 줄었다. 이와 비례하여,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을 넘는 이민자 수도 많이 줄었다. 미국 국경경비대에 의해 체포된 숫자 또한, 2005년에 119만 명에서 2010년 47만 명으로 감소됐다고 한다. 최근 퓨 히스패닉 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불법이든 합법이든 멕시코 출신 전체 이민자 수가 동결됐다고 한다. 경제위기와 월경 비용으로 인해 이민자 수가 지난 5년간 감소했는데, 2005년에서 2010년까지 140만 명이 미국으로 이주했고, 동일한 수가 본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 미국으로 매년 45만 명이 떠난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3분의 1로 줄어든 이민자 수

의 감소폭은 상당한 것이다.

멕시코 정부는 중미인의 멕시코 이주가 최근 5년간 70% 하락됐다고 발표했다. 2011년 첫 8개월간 하락세가 지속되었고, 10명 중 6명은 미국으로 밀입국했다고 한다. 그런데 멕시코의 로돌포 카시야스 교수는 이 숫자는 잘못 집계된 것으로, 정부가 이민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민국에 체포된 숫자가 줄어들었을 뿐이고, 멕시코를 거쳐가는 이민 흐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카시야스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체포된 이민자가 감소한 이유는 전임 이민위원회장이었던 세실리아 로메로가 경찰이 기차를 급습해 체포하는 것을 금지했고, 그녀의 임기 동안에는 오직 이민국 직원과 연방 경찰만이 체포할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 위원장은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카시야스는 비판한다. 카시야스가 지적한 대로, 전체 이민자 수가 줄어든 것은 틀림없지만 정부 발표만큼 현저히 감소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중미인 이민자는 다시 증가 중이라고 한다.

IV. 나가며

중미 국가들은 천재지변으로 이민이 발생하면, 미국이 일시적 보호 지위(TPS)를 부여하기 원한다. 미국은 1998년 허리케인 미치가 니카라과와 온두라스를 강타했을 때, 이민자들에게 이 지위를 부여했고, 2001년 지진 당시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에게도 동일한 지위를 부여했다. 그러나 허리케인 스타니 2005년 중미 지역을 덮쳤을 때, 과테말라가 이 지위를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이렇듯 중미와 관련한 미국의 이민 정책은 일관성이 없다. 지금 미국은 불법 이민자 본국 송환과 국경 강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권이나 근본적 공정 원칙 등의 고

수에는 시큰둥하다는 인상을 준다. 지난 십 년간 가장 큰 인구 변화 비율을 보여준 중미 출신 이민자가 라티노 사회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에는 당장은 요원해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인구 상승률, 도시 집중률, 노동 중사율, 불법 체류 비율, 본국 송금액을 감안하면 미국 사회가 불법 체류자 단속과 본국 송환을 강화하는 반 이민법적 행정 정책을 통해 이민자 규모를 쉽게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웹사이트 '라티노 결정'에서 실시한 '100일'이라는 설문조사에 의하면, 72%의 라티노가 자신의 성공이 다른 라티노/히스패닉의 성공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2010년 8개 주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의 설문 대상자가 이민 정책이 투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들 중 하나라고 대답했고, 3분의 1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대답했다. 2011년 6월, '임프레미디어/라티노 결정 트래킹 여론조사'(Impremedia/Latino Decisions Tracking Poll)에서는 76% 응답자가 반 이민적 환경이 오늘날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설문조사에 의하면 범라티노성 대 개별 국가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라티노의 비율이 24% 대 51%이지만,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범라티노적 정체성을 표명하고 있다. 아마도 이런 성향으로 인해 멕시코와 중미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의 미래에 다소 유리한 정치적 결과를 예상해볼 만하다.

참고문헌

- Brick, Kate, A.E. Challinor, and Marc R. Rosenblum(2011), “Mexican and Central Americ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Migration Policy Institute*.
<http://www.migrationpolicy.org/pubs/MexCentAmimmigrants.pdf>
- Brick, Kate, and Marc R. Rosenblum(2011), “US Immigration Policy and Mexican Central American Migration Flows: Then and Now”, *Migration Policy Institute*.
<http://www.migrationpolicy.org/pubs/RMSG-regionalflows.pdf>
- Mahler Sarah J. and Dusan Ugrina(2006), “Central America: Crossroads of the Americas”, *Migration Information Source*.
<http://www.migrationinformation.org/USFocus/display.cfm?ID=386>
- Pew Hispanic Center(2012), *Statistical Portrait of Hispanics in the United States*, 2010, 2012.
- Preston, Julia(2011), “11.2 Million Illegal Immigrants in U.S. in 2010, Report Says; NO Change From '09”, Feb. 1, 2011, *NY Times*,
<http://www.nytimes.com/2011/02/02/us/02immig.html>
- Rodríguez, Néstor(2007), “Comparing Mexicans and Central Americans in the Present Wave of U.S. Immigration”, in José Luis Falconi and José Antonio Mazzotti (eds), *The Other Latinos*, pp. 81-100.
- Rodríguez, Olga R.(2011), “Mexico: Central America Immigration Drops 70 percent”, Oct. 12, 2011, *Huffingtonpost*.
http://www.huffingtonpost.com/2011/10/11/mexico-central-america-immigration-drop_n_1005706.html
- Sanchez, Gabriel, “Taking a Closer Look at Latino Pan Ethnic Identity”, April 18, 2012, *Latino Decisions*.
<http://www.latinodecisions.com/blog/2012/04/18/taking-a-closer-look-at-latino-pan-ethnic-identity/>
- Taylor, Guy(2012), “Central Americans determined to trek north to U.S.” April 29, 2012, *Washington Times*.
<http://www.washingtontimes.com/news/2012/apr/29/no-road-too-dangerous/?page=all>
- Terrazas, Aaron(2011), “Central Americ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Migration Information Source*.
<http://www.migrationinformation.org/usfocus/display.cfm?ID=821>